

“전북, 지방시대 열어가는데 앞장”

김관영 도지사, 시도지사협 총회 참석...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 등 위해 기준인건비제 개선 강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제58차 총회가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그동안 시도지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앞으로 전북이 지방시대를 열어가는데 적극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관영 지사는 “제16대에 이어 제17대 시도지사협의회회 부회장을 맡게 됐으며, 이번에는 특히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 공동위원장으로 선임된 만큼 시도에서 제안하는 안건들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제안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안건을 점검하고 향후 개최 예정인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제안할 지방안건인 ‘기준인건비제 개선’, ‘중앙투자심사제도 개선’, ‘지역공공의료체계 강화’, ‘자치경찰권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법 특례 시행으로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국가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요는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58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임시총회에 김관영 도지사(뒷열 왼쪽 세번째)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이 화이팅을 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계속 확대되고 있다”며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제 개선을 통한 신규 인력 반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서 논의된 안건들은 지

방안건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 실무협의회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차기 개최될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시도지사협의회는 박형준 부산

시장을 지난 제57차 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했으며, 김관영 지사와 김태홍 충남지사를 부회장으로, 김두겸 울산 시장을 감사로 선임하며 제17대 임원단을 구성했다. /김재훈 기자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새로운미래 당사에서 열린 제1차 창당준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윤영 미래비전위원장, 신정현, 이석현, 서효영 공동창당준비위원장, 이낙연 인재위원장, 신경민 국민소통위원장, 김효은 대변인.

“민주 ‘짜통형 비례제’ 반대”

새로운미래, 창당준비 회의서 “역행적 아이디어”

제3지대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새로운미래는 22일 더불어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의 권역별 비례대표제 제안에 대해 “짜통형”이라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창준위)는 이날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소재 당사에서 첫 창당준비위원회를 열었다.

이석현 공동창당위원장은 “어제 민주당이 제안한 짜통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혁백 위원장이 완전 병립형 회기는 욕 먹게 생겼으니 지역주의 극복을 하는 것처럼 착시하는 권역별 병립형을 제안했다”며 “병립형 비례제가 소수정당에 불리하다고 하니, 소수정당에 일부 비례 의석을 줘달라는 형태가 민주당의 새 비례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례대표 47석에 캡을 씌워 소수정당에 15석 정도를 준다는 것이지만 역행적 아이디어”라며 “선거를 코앞에 두고 바꾸면 경기를 앞두고

경기 규칙을 바꾸는 것과 같다”고도 했다.

인재임원위원장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국민께 아무 희망도 되어드리지 못하고 있는데도 이런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거대 양당의 이기주의는 진인할 정도”라며 “비례대표제에서 최악의 품수가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전 총리는 민주당 제안에 대해 “양태 정당 이외에는 한 석도 주지 않겠다는, 참으로 망국적 발상이 황방을 짓기라고 저는 믿는다. 당장 거두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새미래는 다음달 초 창당대회를 목표로 이주부터 지역 시도당 창당대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미래는 방탄정당과 검찰공화국이 싫어서 찍어줄 생각이 없는데 국민들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며 “이분들과 손잡고 거대 양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로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우겠다”고 전했다. /뉴스

새로운미래·개혁신당·미래대연합, 제3지대 정책협의체 구성

빅텐트 구상 관련 “적절한 절차 따라 진행”

새로운미래와 개혁신당, 미래대연합 등 제3지대가 연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비전대화 협의체를 가동한다.

전하람 개혁신당 최고위원과 최윤영 새로운미래 비전위원장, 정태근 미래대연합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의 비전을 만들기 위한 협의체를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정태근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개혁과 미래를 위해 공동 준거를 만들어가기로 했다”며 “각자의 개혁과 미래 비전을 내놓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나가는 대화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전대화의 형식은 내부 협의와 공개토론, 시민참여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당장 이번 주말에 각 정당과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 인물이 참여하는 공개토론 일정을 계획 중이다.

전하람 최고위원은 “연대를 위한 연대를 해서 안 된다, 연대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고 했다”며 “왜 연대가 필요한지, 연대를 위한 비전을 채우는 협의체를 가동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가장 먼저 이견을 좁혀야 할 주제를 놓고는 “각자 비전을 공유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협의체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위기 상황과 관련한 정책분야가 첫

번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제3지대 연대 가능성에는 “이준석 대표가 빅텐트의 골든타임이 지났다고 말했다”면서도 “느슨한 연대안을 염두 두는 게 아니다. 적절한 절차에 따라 빅텐트가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합당을 마치고 비전을 공개한 새로운미래, 한국회의당과도 공동 비전 협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급대선 전 의원 및 양향자 대표와의 논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뉴스

4월 국회의원 선거 “저도 축하합니다”

“전북 발전 위해 마지막 소임 다할 것”

국힘 정운천 의원, 전주를 출마 공식화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비례)이 22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전주를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정부·여당 소통 창구로 장군 출신 여당 3선 국회의원이 돼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또 “지난주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강한 반대로 포함되지 못한 특례와 추가로 발굴하게 될 특례를 담기 위해 3차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며, “여·야 협치로 이룬 기적 같은 성과가 다음 국회까지 이어지기 위해 여당 국회의원 1명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21대 국회 4년 동안 여의도 정치는 양극단의 대립 속에 있었지만, 민선 8기 도정 출범 이후 전북 정치는 협치의 시대를 열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며, “이제는 전북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협치의 시대를 만들



여야 광주·전남을 벗어난 진정한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관영 도정 출범 후 협치의 성과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새만금 10조원 투자 협약을 꼽았다.

특히, 강원도가 14년에 걸쳐 해낸 일을 약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통과시킨 것과 정부개정 추진 결과 강원도보다 47개가 더 많은 131개 조항에 333개의 전북형 특례를 담아낸 것은 여·야 협치의 가장 큰 성과로 제시했다.

이어 아직 풀지 못한 현안들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조건부로 통과된 새만금 예산 정상화, 남원 공공의대를 언급하며, 정부·여당 소통 창구로 위해 여당 국회의원 1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의원은 충남과 전북의 경제지표를 비교하며 “1인당 GRDP는 두배, 법인세는 3배 가까이 차이가 높다”며, “충남은 30여년 동안 여당과 야당이 공존하며 치열한 경쟁 속에서 협치가 가능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금 더욱 강화된 여·야 협치를 통해 부정을 긍정으로 불신은 신뢰로 남 탓·무기력을 희망과 창조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민주 정동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

전 통일부 장관인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예비후보(전주병)가 지난 20일 오후 3시 전주시 영진빌딩(태평양 수영장)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이제는 싸워야 할 때”라며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개소식에는 권노갑, 조영남, 김홍신, 유인경 등의 축하 영상 메시지가 상영

되며, 정동영 예비후보를 좋아하는 청년 모임 DMZ(D는 동영 + MZ세대)의 명예 회장 추대식이 진행된다.

정동영 예비후보는 “이번 선거는 전북을 현대판 윤석열 백색 독재를 종식시키는 게 전북이 살길”이라며 “폭정에 맞선 동화농민혁명처럼 민생 파탄, 경제 파탄, 외교 파탄, 남북문제 파탄



의 책임을 물어 전북이 앞장서 정권 퇴진 진원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반

나인권 자치도의원, 소공인 민생경제 현안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의원(김제1·더불어민주당)이 22일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도내 제조 소공인의 산업환경 변화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도내 소공인 15개 사 대표, 광역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기관인 전주벤처기업육성추진발전협의회(이하 JVADA) 관계자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간담을 통해 전북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도내 소공인 집적지 간연계·협업을 위한 관계망 역할을 수행하며, 열악한 소공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산·학·연·관 연계 및 체계적 육성을 해나가는데 있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JVADA 이인호 회장과 소공인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나인권 농산업경제위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상품 우선 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역 소공인 제품의 판로를 지원하고 지역경제 성장 인프라 발전에 힘써준대 대하여 감사를 전하고, 감사



패를 전달했다.

나인권 위원장은 “그동안 도내 업체들이 타지역은 물론 도내에서조차 소외당하며 사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내 우수 지역상품의 판로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도내 소공인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기반이 탄탄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나인권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2023년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 조직위원회’가 서울 여섯 플라자 아트홀에서 개최한 ‘2023년 대한민국 위대한 한국인 100인 대상’에서 지역경제성장인프라발전 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순창군의회, 갑진년 첫 임시회 개최... 군정 주요업무계획 청취

순창군의회(의장 신정아)가 22일부터 5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열어 2024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집행부로부터 보고받는다.

신정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제9대 순창군의회에 보여준 성원과 격려에 대해 군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지평이 열린 만큼 순창군이 가진 강점과 특색을 집목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깊은 고민과 철저한 준비를 집행부에 당부했다.

이어, 동료 의원에게 이번 임시회는 올 한해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회기임을 강조하며 주요 업무 보고·청취 시 군민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원하는 바를 정확하게 살펴 합리적인 대안과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또한, 이날 회의에서 오수환 의원은 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소득과 재산권 보장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고, 최용수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 산하기관 직원의 정주인구유입, 소비촉진, 지역인 우선채용을 담은 ‘전북특별자치도 산하기관 지역발전 상생 촉구 건의안’을, 이성용 의원은 지방소멸위기 극복, 국토 균형발전 등을 위한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제안해 모든 의원들의 동의에 채택됐다.

한편, 오수환 의원은 5년 자유발언을 통해 “정주인구 증대와 순창군 활성화”를 위해 면단위 공공임대 주택 공급, 면지역 초등학교 살리기, 섬진강 에코트레일 순환열차 관광상품 개발 사업의 국가예산사업 선정을 제안했다. /순창=이영민 기자